

제일은행.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

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제도담당관실 500-5354

<> 정부는 '97.12.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각각 1조 1,800억원 규모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하였음.

1. 출자배경

-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종금사 업무정지.은행 구조조정방안 발표 등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일.서울은행에 출자키로 결정

2. 출자방안

- 출자규모 : 제일.서울은행에 각각 1조 1,800억원 유상증자(수권자본 2조, 납입자본 8,200억, 이 경우 정부지분을 59%)
- 출자일정 : 12.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주중 출자 완료
- 출자방법 : 정부보유주식과 은행신주를 교환(swap)
 - * 추후 이들 은행 주가가 액면가를 회복할 경우, swap을 해지하고 시가로 증자
 - > 이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내외 일반투자자에게도 증자참여 허용
 - * 단, 정부지분이 50%를 넘더라도 정부출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시중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(금년내 관련법률 개정)

3. 제일.서울은행의 자구노력 추진

- 제일.서울은행도 정부의 지원에 상응하는 강도높은 자구노력*을 이행하고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엄격히 점검
 - * 각 은행당 1,500명 이상의 인원감축, 전직원 임금 10% 이상 삭감 및 임원급여 30% 삭감, 40개 이상의 점포 통폐합,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

등

4. 출자효과

- o 은행도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
- o 정부출자.자구노력 등 추진시 BIS 비율 제고되어 대내외 신뢰도 개선
('97.12말 8%, '98.6말 9% 추정)
- o BIS 기준 미달을 우려하여 위축되었던 기업대출 확대

